

GGM 생산 '캐스퍼' 대박 국가대표 AI 중심도시 도약

광주시 결산

2021년 신축년(辛丑年) 민선 7기 광주시정 성과는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형 SUV 캐스퍼(CASPER)로 상징되는 '광주형 일자리'와 국가 대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아이낀아 키우지 좋은 맘(MOM)편한 도시 등으로 압축된다. 다만 지역 숙원 사업인 군(軍)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이 해를 넘기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선 7기 3년 6개월간 이룩한 대표 10대 성과를 살펴봤다. 가장 대표되는 성과는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23년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 건설을 이끌었다. 지난 9월부터 양산되고 있는 캐스퍼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고,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도약한 점도 대표성과 중 하나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지역사회 일부분에서 광주시의 인공지능 사업 도전을 놓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정부는 올해 광주시를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도시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현재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 집적단지 조성하고 있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도 건설 중이다. 특히 경쟁력을 가진 133개의 인공지능 기업과 기관이 광주에 새롭게 등지를 틀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성과를 내고, 각종 출산 장려정책까지 이어지면서 광주는 울 들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매달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성과도 냈다. 실제 올 1-9월 전국 출생아 수는 작년 대비 3.5% 감소한 반면 광주시 출생아 수는 11.2%나 증가했다.

3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 균형 등 6단계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의 기후위기 대응 선도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광주시는 정부와 유럽연합(EU) 국가보다 5년이나 빠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 최대 공원면적 비율(90.4%) 확보, 광주 첫 시립수목원 조성 등 다양한 환경보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올해 호남 최초로 여자배구단 AI퍼퍼스를 유치해 시민들이 사시사철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의 면모도 갖춰나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착공과 달빛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교통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도 민선 7기 핵심 성과로 꼽힌다.

2023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광주 어느 곳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시대가 열리게 되고, 영호남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달빛고속철도가 건설되면 1800만 동서광역경제권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치가 강한 도시'에서 '경제가 강한 도시'로 체질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산업불모지나 다름없던 광주는 민선 7기 들어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노사상생 도시로 탈바꿈 하면서 사랑과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대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용섭 광주시장

출생아수 11% ↑ 생애주기별 지원 효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영호남 숙원 달빛고속철 국가계획 반영 군공항 이전·어등산 개발 해넘겨 아쉬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전국을 대표하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에 나선 점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광주시는 실제 7개 특광역시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을 정도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비 예산을 역대급으로 확보한 점도 돋보이는 성과 중 하나다. 민선 7기 4년만에 국비 예산이 1조원에서 3조원 대로 크게 증가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채무비율은 2017년 22.72%에서 2022년 16.78%로 낮아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되고 있다. 다음 세대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물려주려면 힘들어도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서는 안 된다"며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그늘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시민과 힘을 합쳐 임인년 새해에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예산 11조 시대...SOC 확충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유치

전남도 결산

민선 7기 전남도의 2021년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대 국고예산 확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우선 꼽힌다. 전남도 개청 이래 처음으로 2021년 예산 11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국고 예산도 역대 최대인 8조4000억원을 반영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미래 발전을 준비할 토대를 쌓았다.

내년 3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개최할 한국에너지공단의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국에너지공단법 제정,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 추진 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48조원 투자협약 유치도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다만 코로나 19 유행 속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30년 전남의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이 의사단체 반대에 막혀 늦춰진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분야별 성과로는 우선 경제·일자리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지원확보,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 원 투자협약 유치 등이 꼽힌다. 민선 7기 들어 900개 기업에서 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성과다.

도로 등 SOC 분야에서는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국가계획 반영이 첫순에 꼽힌다. 신안 압해·목포 울도·달리도-해남 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예비 타당성 통과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성과가 있었다. 철도와 도로, 연륙·연도교 건설 및 개천 사업은 도민 이동권 확보는 물론 기업·투자 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데도, 역대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견줘 전남을 후대해왔다.

농어업분야에서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가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조성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에 이어 해남에 기후변화대응센터까지 유치하면서 전남도가 농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 40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ha 부지에 정책지원부, 기후데이터부, 첨단인프라부, 기후변화대응 종합 홍보관 등 시설을 갖춘다. 생산유발효과 6004억원, 부가가치 1965억 원, 취업인원 3847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도 장터 브랜드대상 4관왕 및 연매출 500억원 달성, 한국농심진흥원 유치 및 개원도 농업 분야에서 전남도가 거둔 성과로 평가된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전남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신안 퍼플섬은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광양),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승인(나주) 등 도내 곳곳에 문화 시설을 늘려간 것도 도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도민행복 증진 분야에서는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섬주민 1000원 여객선이 호평받았다.

또한 도민 안전보험 무료제공, 전국 최초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시행, 도단위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대학 졸업반 '힘내라 희망장학금' 지급도 소소하지만, 도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사업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제정,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등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2023년 개최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비 확보, 2026 여수세계박람회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서 승인받으면서 전남 동부권에 잇따라 굵직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토



김영록 전남지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지원확보 해남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센터 유치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30년 도민 숙원 의대 설립 늦춰져

대를 마련한 것도 민선 7기 전남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 해 굵직한 현안사업에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민 모두가 함께 꿈꾸고 노력한 덕분"이라며 "용맹한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을 맞아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와 관련해선 "코로나 19 상황에서 도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다. 어려움을 아는 데도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죄송스럽다"며 "전남도의 재정 상황이 좀 더 풍부했다면 더 많이 지원해드렸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의사단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눈앞까지 왔던 전남권 의대 설립 사업이 늦춰진 데 대해선 "코로나를 겪으며 전남도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에는 반드시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유아교육과	6	
예 능	음 악 학 부	12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	
예능	음악학부	○ ○	

우치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책자소 36